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열정 담다

‘2018 이수자던’ 국립무형유산원 얼썩마루서 9월 29일까지

무형문화재를 전승하는 차세대 무대 공연이 오는 7일부터 시작한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날부터 9월29일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얼썩마루 소공연장에서 ‘2018 이수자던’을 개최한다. 2014년 시작해 올해로 5회째인 ‘이수자던’은 국가와 시·도무형문화재 이수자들이 활약할 공연의 장을 넓히고자 시작한 사업이다. 올해 개인과 단체 총 12조가 7대 1 경쟁률을 뚫고 선정됐다. 선정된 이수자들에게 국립무형유산원 얼썩마루 소공연장, 무대진행요원 지원, 홍보물 제작, 공연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2018 이수자던’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10편, 시·도무형문화재 2편 등 총 12편이 무대에 오른다.

7일 첫 공연은 고려·조선 시대 기녀들을 중심으로 가무를 관장하던 교방(敎坊) 예술 가운데 경남 진주와 통영 지방에서 전승돼 온 ‘교방춤 교방여악-영남무림’ 무대다.

14일에는 여로 작업의 고단함을 노래로 극복하고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는 ‘겨기나-칭칭노래, 얼씨구 조~타’, 21일에는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창작음악을 조화롭게 엮어낸 ‘허튼가락(락) 시리즈’, 28일에는 경남 고성지방을 기반으로 전승된 노동요 ‘고성방가(高聲放歌)’의 무대를 만나볼 수 있다.

8월4일에는 서울 사대문 안의 경기소리 애호가들이 한데 모여 재구성한 소리판 서울, 장

안(長安)의 소리 두 번째 이야기 ‘공청(公廳)’, 8월11일에는 젊은 연주자들의 즐거운 풍류와 가야금산조 ‘땃! 그 소리 멋있다’, 8월18일에는 예술성과 전문성이 뛰어난 춤을 엄선한 ‘춤으로의 여행’, 8월25일에는 느림의 미학으로 힘이 있는 현대 가곡 공연 ‘잠깐 휴식’을 펼친다.

9월11일에는 경기잡가의 유래라 일컫는 깊은 사랑(舍廊)이란 특별한 공간을 재구성해 경기 소리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깊은 사랑

(舍廊) 참가 ‘잡담’, 9월8일에는 전통춤 기본으로 돌아가 우리 춤의 본질과 의미를 살피는 ‘무향만리(舞香萬里)’를 선보인다.

9월15일에는 풍년을 기원하고 만복을 기원하는 젊은 이수자들의 재담 넘치는 무대로 풍요와 다산의 기원 ‘까막까막 말씀 적에’, 9월22일에는 판소리 춘향가의 주요 눈대목을 현악기 거문고와 협연해 애절함과 웅혼함을 더한 ‘춘향, 거문고와 놀다’ 등을 마련한다.

모든 공연은 무료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웹사이트(www.nihc.go.kr)나 전화(063-280-1500)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국립무형유산원은 9월29일까지 토요일 오후 4시 얼썩마루 소공연장에서 ‘2018 이수자던’을 개최한다.

예술가 지위·권리, 법으로 보장한다

문화예술계 성폭력 신고상담창구 운영 관계부처 양성평등 전담 기능 강화

정부가 가칭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여성가족부는 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계부처 합동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고용관계가 아닌 예술인의 성희롱 피해 등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권리 침해행위 구제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예술인 특성을 고려한 상담서비스 지원을 위해 예술계 고충상담원, 전문상담원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현장 상담 활동도 지원한다.

또 문화예술계 특별신고·상담센터 운영종료에 따라 신고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한다. 원스톱 전용 상담전화(1670-5678)를 활용하고 성폭력 전문상담원, 변호사 등을 배치해 심리상담, 소송과 의료지원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그간 접수된 특별신고·상담센터의 신고 상담

사건을 분석해 백서도 제작·보급한다.

정부는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문화예술분야 보조사업 심사 시 심사위원에서 배제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성평등과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개선되도록 주요부처에 양성평등 전담 기능을 강화한다.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성희롱 금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단독 법률도 제정하기로 했다.

/뉴시스



정부가 가칭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미투 운동 그 이후, 피해자가 말한다’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연출가 이윤택 사건 변호인, 피해자, 대책위 관계자들이 진상규명 촉구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익산시가 익산 관광지를 홍보하는 동영상, 관광가이드북을 제작해 눈길을 끈다.

‘어서와, 익산은 처음이지?’

백제왕도 1번지 익산, 관광홍보물 제작·배포

익산시가 백제왕도 1번지 익산 관광지를 홍보하는 동영상, 관광가이드북을 제작해 눈길을 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이 동영상은 ‘세계유산 익산백제 시간여행’을 주제로 제작, 세계유산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 전통항아리정원 고소리, 등 익산시투어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관광지를 담고 있다.

특히 왕궁리유적 백제 복식, 교도소세트장 최수복, 보석박물관 웨딩의상, 익산문화예술거리 교복과 교련복, 함라한옥체험관 한복 등 다양한 의상체험을 소개했다.

또한 ‘어서와, 익산은 처음이지?’라는 관광가이드북은 관광객의 여행 동선을 고려하여 동서남북 지역별, 관광객의 체류일정에 맞도록 1일, 1박 2일 코스 등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시는 동영상은 익산여행센터, 원

광대학교 등과 관광가이드북은 관내 관광안내소와 주요관광지, 55개의 전국휴게소 등에 배포하여 백제왕도 익산 관광지를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관광홍보 동영상은 관광기별로 재구성하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버전으로 제작하여 SNS, 트위터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마한, 백제의 꽃밭’이라고 신동엽 시인이 말한 백제왕도 1번지 익산이 미륵사지석탑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 9점이 최근 보물 제1991호로 지정되어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 올해 익산시는 제99회 전국체전과 제38회 장애인체전 등 굵직한 행사를 앞두고 있어 익산 관광 홍보에 최선을 다해 관광객 유치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익산 문화재 야행, 20일부터 이틀간 백제 왕궁 일원서

익산 문화재 야행이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 왕궁 일원에서 열린다.

익산시가 주최하고 익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익산 문화재 야행은 야경(夜景, 당신을 기다리며 천년을 서 있었네), 야로(夜路, 천년의 길 천걸음), 야사(夜史, 재미있는 백제이야기), 야화(夜畫, 아는 만큼 보인다), 야설(夜設, 백제왕궁 야연), 야식(夜食, 백제무왕의 야식), 야시(夜市, 탐미 야시장), 야숙(夜宿, 문화재와 함께 하는 야숙) 등 8개 주제로 다양한 이간문화 프로그램 28개를 선보일 예정이다.

문화재 야행은 문화재를 관람하면서 거리를 걷고, 공연을 보고, 역사를 되새기는 문화재정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익산시는 공모에 선정돼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다.

익산 문화재 야행은 백제 왕궁 일대인 왕궁리 유적, 탐리마을, 고도리석불을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개방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백제 30대 무왕의 입궁 행렬을 재현한 백제 무왕 입궁식(저녁7시 30분)을 시작으로 퓨전 국악 공연, 백제 왕궁에 울리는 풍류(저녁8시)의 선율이 왕궁을 찾는 관람객들을 감성에 끌어올리게 할 것이다.

또한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한지로 만든 꽃등을 들고 왕궁리 오층석탑을 돌며 소원을 비는 천년 기원을 담은 달달이, 서동선화 캐릭터를 찾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천년 달빛 아래 숨은 서동선화 찾기, 여름 달빛을 받으며 백제 왕궁 후원을 산책하고 천년 고도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익산=우병희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